

The Keyword V.

인식((認識, cognition) - 내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1. 인식

인식(認識, cognition) 또는 인지(認知)는 대상을 아는 일이다. 인식은 인간의 실천에서 시작되며, 실천을 통해서 처음으로 감각적 직관에 의한 직접적·개별적·구체적인 감성적 인식이 형성된다. 이는 사물의 본성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인상 같은 것이다. 이 감성적 인식을 방침으로 하여 다시 실천을 계속하면 그릇된 점은 정정되고, 다른 사물과의 비교·구별 등을 통하여 개념·판단·추리를 하며, 사물의 본질적인 이성적 인식을 얻는다. 이 이성적 인식을 일반적으로 인식이라 부른다. [위키백과]

인간은 인식과 인지를 통해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판단과 결정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내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1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다. 믿음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즉,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믿음이다. 대표적인 예가 풍랑속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음'에 대한 것이었다. 풍랑이 치는 이 상황을 너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다. 그 일을 통해 제자들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난다.

[마가복음 4: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믿음은 내가 처한 현실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히브리서 11:6절에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을 말하는데 첫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두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2. 현실인식

내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느냐'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다. 대부분의 심각한 문제는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난다. 현실을 인지하는 현실감각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 신앙의 위기 - 엘리 제사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난 배경이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나타난다. 당시의 영적상황은 최악이었다. 그 지표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엘리 제사장'의 상태이다.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의 타락이었다. (사무엘상 2:11-17)

[사무엘상 2:12]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2:22-23]

22 엘리야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범죄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엘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상황인지는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영적 현실감각'이 완전히 무뎌진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다. 결국 이 문제는 엘리의 가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했다.

[사무엘상 3:13]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 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 주었다.

성경은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았는지 정확하게 말한다.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바로 엘리의 이와 같은 태도가 '죄의 본성'이다.

죄의 본성의 특징은 '현실'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린다. 인류 최초의 범죄 선악과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벌거벗은 자신의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낀다. 수치심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다는 죄책감이다. 자신이 처한 공간이 두려움, 저주의 공간으로 바뀐다. 그 결과는 보기 싫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나무 뒤로 숨는 일이었다. 죄로 인한 고통의 해결을 '현실도피'로 해결한다.

(2) 허상과 현실

현실도피를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내가 속한 지금이 너무 싫기 때문이다. 잠수타는 것은 편하다. 숨는 것이 쉽다. 현실을 담아내기 버거운 내 모습이 싫다. 실패한 내 모습을 보기 싫기 때문이다. 미래 또한 그와 같다. 인간의 고민은 사람의 모든 것을 대신할 인공지능이 있는 로버트를 만드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관건은 사물 스스로의 '인식능력'에 있다. 그리고 인간은 로버트의 인식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대적 인식을 기대한다. 인간의 판단은 불안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로버트는 절대 실수할 일이 없다. 인간은 거짓말하고 배반하지만, 로버트와 같이 절대 거짓말과 배반할 수 없는 존재를 기대한다.

3, 사회현상

(1) 원시 사회로의 회귀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은 원시 사회에 대한 동경 (애니미즘, 토테미즘 / 자연숭배 사상 / 탈도시화, 명상, 등)

(2) 신비주의

현실을 떠난 사상과 이야기의 극성 (판타지 영화, 마블 영화의 인기, 슈퍼 히어로를 통해 현실의 한계를 넘는 대리만족), 게임족, 가상 현실족의 증가(하루종일 VR에 중독)

(3) 우상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우상화 한다. 우상은 내면의 불안함을 잊기 위해 만든 형상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모세가 부재했던 때의 불안함을 안위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 그 대상이 우상이다.

4. 결핍, 연약함, 한계, 부족함이 있는 나에 대한 인식

복음의 관점에서 '나'를 보아야 한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환자가 언제 의사를 찾는가? 바로 자신의 '병'에 대한 겸허한 인식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때를 말한다. 그 사람이 도움을 구한다.

[누가복음 5:31-32]

3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32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오늘날 하늘의 능력이 나타는 곳은 인간의 고통이 있는 곳이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은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발전이 있다.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복음의 속성을 명확히 하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사역을 보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곳은 언제나 연약함이 드러난 현장이었다. 현장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기적을 경험했다.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과 죄인을 안아 버리셨다. 죄 안으로 오셨다. 아버지가 죄인된 탕자를 안아 버리셨다. 정죄하지 않으셨다. 회피하지 않으셨다.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났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와 그로인한 두려움, 정죄감, 수치심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승리자로 모든 것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 (첫번째 아담이 피한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은 받아들이셨다.)

다윗을 보라. 성경은 완벽한 다윗을 말하지 않는다.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 죄인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윗의 위대함은 실수를 하지 않고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간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약점과 연약함이 보여진다. 다윗은 죄인된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 위에 임한다.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슬프게 운다. 슬픈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을 줄 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때문에 아파한다. 한계를 받아들인다. 회피하지 않는다. 솔직하다. 그리고 그 위에서 시작한다. 오늘 나의 약점과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임을 인식하라.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승리가 나타난다.